

가정폭력 피해자녀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The Impact of Group Art Therap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보건미술치료학과
강사 김갑숙*

Department of Public Art Therapy, Yeungnam University
Instructor : Kim, Gab-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e therapy program was designed to enhance self-esteem and reduce anxiety for these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d sev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fiv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therapy program consisted of thirteen sessions that were held between September 25, 2002 and December 17, 2002. Each session lasted approximately 100 minutes.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was evaluated by a pretest and a post-test. The instruments used in the tests were the Anxiety Scale and Self-Esteem Scale. In addition, HND (Here and Now Drawing) was adopted for qualitative evalu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s.

The results show the following:

First,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was effective in enhancing the children's self-esteem and in reducing their anxiety.

Second, there was a qualitative change in children's HND (Here and Now Drawing) after the therapy program, which proves that the group art therapy was effective.

▲주요어(Key Words) : 가정폭력피해자녀(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집단미술치료(group art therapy),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불안(anxiety), 자존감(self-estee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언론보도를 통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문제로 논의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

구되어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97년 말 IMF 이후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부부갈등이 깊어지면서 아내구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김재엽, 1999),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 중인 긴급전화 여성 1366의 지난 1-5월 상담안내 실적에 따르면 총 6천 871건 중 30.4%인 2천 88건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보다 2배 이상, 홍콩보다 3배나 많은 발생율을 보여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조선일보, 2001. 9. 23).

* 주저자: 김갑숙(E-mail: pinakim@hanmail.net)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가족해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피해자 여성들은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함께 정신적 무력감에 빠져 사회적 소외 속에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으며(김미애, 2002 재인용), 폭력을 당한 부부 중 나머지 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자녀에게 자신의 분노를 치환시켜 이차적인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폭력을 관찰한 아동은 슬픔과 불행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고 대상에 대한 분노와 불신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무력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문제행동 및 청소년 비행을 일으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가정폭력은 세대간에 전이되어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즉 폭력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는 후일 아내구타에 대해 더욱 허용적이며, 장래 남자는 구타하는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자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갑숙, 1991).

이와 같이 학대후유증은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일들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심리적 복지감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는데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심리적 복지는 건강과 객관적·주관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 및 적응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우울, 불안, 디스트레스, 만족감 등의 측면에서 측정하는 양상이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특성은 불안과 우울이 높으며 자존감이 낮아 현실생활에 대처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지영(1989)은 불안감은 성격발달 뿐 아니라 흥미, 가치관, 인간관계 및 전반적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 측면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피해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과 함께 어머니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무력한 상황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두려움과 어머니를 보호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죄책감, 슬픔 등으로 피해자녀들은 불안이 많고 위축되어 자기표현이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상담 시 언어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Gil, 1994; Malchiodi, 1990) 전통적인 대화식 상담방법과 함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방식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미술은 상담자와 아동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위한 촉매제

(Winnicott, 1971) 역할을 하므로 최근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말로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이라도 그림 속에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기도 하므로 아동이 만들어 낸 미술작품은 아동 자신의 마음이며 경험이다(김동연 외, 2001).

아동의 그림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반영으로 아동에게 있어 발달, 성격,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문화의 사회적 역할까지 아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그림을 활용한 미술치료는 아동의 내면세계와 내적 경험들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 열어 보임으로써 창조적인 활동과 함께 보상과 회복을 촉진시키는 이점이 있어 아동들에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상담 및 치료 도구라 할 수 있다(Malchiodi, 1998).

특히 집단미술치료는 언어 이전의 속성을 지닌 매체를 이용한 집단활동으로 위협감이 적고 긍정적인 신뢰감 형성은 물론 심리적 저항감의 감소, 지체된 정신발달의 촉구 및 무의식의 탐구 및 성찰 그리고 적절한 치료환경까지 가능하게 하여 언어에 비해 세밀한 감정을 잘 전달해 준다(황유경, 2001).

집단미술치료를 통하여 아동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협동작업을 함으로써 조금씩 가까워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심리적 외상을 가지고 있는 동질집단의 아동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집단미술치료를 적용시킨 연구(최외선·이영석·전미향, 1996; 김동연·이성희, 1997; 전미향, 1997; 전중국·최선남, 1997; 백양희, 1998; 김갑숙·정미숙, 1999; 송인숙, 1999; 전순영·김동연 2001)에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이 밝혀져 부적응행동 개선, 사회성 및 자존감이 향상되어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잠재되어 있는 우울감과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앞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당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의 불안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은 객관적·주관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 및 적응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측면으로 자아존중감을, 부정적 측면으로 불안을 하위영역으로 적용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상아동은 폭력가정 피해 자녀들로 경남 ○○ 여성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모자가정 자녀인 초등학교와 중학생 전원 13명이었다. 그러나 컴퓨터관의 특성상 도중에 컴퓨터를 떠나는 아동이 3명이 있었고, 프로그램 실시 후 입소한 아동이 2명 있었으나 프로그램 초기단계라 집단에 같이 포함시켰다. 중간에 입소한 아동은 2회기부터 집단에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인원은 12명이었으며, 컴퓨터에 있는 모든 초·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통제집단을 선정할 수 없었다.

집단원의 특성은 성별로는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8명이었고 초등학교 중·고학년이 7명, 중학교 1년생이 5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불안척도

Spielberger(1970)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척도를 김정택이(1978)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불안을 측정하는 것으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769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김은주(1988)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아동에게 맞게 수정하여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언제나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산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895로 나타났다.

3) 요즘 내 모습 그리기

지금 현재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자기존중감의 질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즘 나의 모습' 기법을 활

용하여 사전 사후 그림을 받아 비교 분석하였다.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

집단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 내담자 내면에 간직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돕고 감정적 위기를 완화하고, 카타르시스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내담자 개인의 통제력과 자기수용력, 자기 책임감 완수를 유도하며(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집단 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탐색해 나가는 활동이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경우 상담 초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상실, 분리, 편부모가족구조, 그리고 성역할에 할당된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패턴을 재고하는 것을 다룬다. 미술치료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루며 긍정적인 치료경험을 제공한다.

미술활동은 아동이 가진 무서운 기억들이 가진 힘을 감소시키고 좀 더 긍정적이고 즐거운 기억들로 대체하는 도구와 기회를 제공한다(황유경, 2001 재인용). 이러한 과정에서 비구조화된 그림, 풀라주, 그리고 집단그림을 소개하는 것은 유쾌하고 불유쾌한 기억 둘 다 표현하게 하고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기회를 가족에게 제공한다

특히 집단미술활동의 주제가 자신의 장점이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일 경우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긍심 향상과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상의 내용과 선행연구(김동연·이성희, 1997; 전미향, 1997; 송인숙, 1999; 남현우·이지현, 1999; 황유경, 2001)를 참고로 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3단계로 분류하였다.

초기단계는 집단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집단원들이 미술활동에 보다 쉽게 적응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매체이며 저항 없이 미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수채화 물감을 이용하여 집단원들의 감정을 이완시키도록 하였다. 중기단계에서는 점토작업, 종이 찢기, 지우기 작업등을 활용하여 집단원들에게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후기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미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동안 진행해온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다음 <표 1>과 같다.

4. 집단미술치료 실시

집단미술치료는 2002년 9월 25일에서 12월 17일까지 13주간 주 1회 100분씩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주 진행자 1명과 보조진행자 1명이 담당하였고, 대상아동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감정 이완과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고자 노래와 촉진게임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 미술활동을 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과 서로 나누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5. 자료처리

프로그램 효과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측정되었다. 양적 분석에서는 불안 척도와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요즘 내 모습' 그림을 분석하였다.

1) 양적 분석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대상아의 불안감 해소와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다.

2) 질적 분석

질적인 분석을 위하여 '요즘 내 모습' 그림을 사전·사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시 그림에 나타난 양식과 상징은 그림해석기준(인물화 및 HTP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법; 김동연·공마리아, 1998)과 집단원들의 반응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자 외에 미술치료전문가 1인이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과정 중에 나타난 아동들의 행동과 반응을 살펴보았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참가자의 응답내용을 참고하였다.

<표 1> 미술치료활동 프로그램

단계	회기	활동과제	활동내용	기대효과
초기 단계	1	별칭 짓기, 자기소개 요즘 내 모습 그리기	장래희망을 생각하며 별칭을 정하고, 최근의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함	상담의 분위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익히며 감정을 이완시켜 집단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2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로 개별작품을 만들어 자유연상 작업을 한 후 조별로 이야기를 구성함	
	3	손도장 찍기	손에 물감을 묻혀 자유롭게 손도장 찍기를 하고 손을 tracing하여 오른손에는 손의 좋은 기능을, 왼손에는 나쁜 기능을 적음.	
중기 단계	4	상징적 가족화	자신의 가족을 생각해 보고 상징적으로 표현함	자신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 표출작업을 통하여 감정을 순화시키고 상호간의 욕구 파악
	5	가정에서 없어져야 할 것	가정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을 찾아 적고 지우기 작업	
	6	소조활동	자유연상 되는 것을 지점으로 만들기 함	
	7	내가 바라는 아버지상	조별로 바라는 아버지 상을 플라쥬로 표현함	
	8	내가 버리고 싶은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외적인 것 중 버리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	
후기 단계	9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은 모습을 계란화로 표현	자존감 향상과 긍정적 자아상을 고취시켜 미래의 방향설정과 자신의 역할을 재인식하도록 도움을 준다
	10-11	자신과 타인의 장점 찾기	신체 본뜨기를 하여 자신의 장점 및 타인의 장점 찾기	
	12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	만들어 살고 싶은 세상을 조별 협동화로 표현함	
	13	상장 만들기	자신이 가장 받고 싶은 상장을 만들어 수여식을 함	
	사후검사	요즘 내 모습 그리기	최근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함	자신의 변화상 인식

III. 프로그램 회기별 과정

■ 1회기 : 별칭 짓기(자기소개), 요즘 내 모습 그리기

첫 시간으로 서로의 서먹함을 줄이고 긴장을 풀기 위해 수건 돌리기를 하여 자리를 재조정하고 집단에 대한 소개와 자신들의 소개를 하였다.

집단을 시작하기 전에 집단에서의 유의점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야유하거나 비웃지 않기, 집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성실히 할 것, 집단 내에서의 이야기를 밖에서는 하지 말 것, 집단 후 정리정돈을 잘 할 것 등을 약속하고 별칭 짓기를 하였다. 별칭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방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자신의 장래희망을 별칭으로 하였다. 장래 희망은 주로 선생님이 많았으며, 의사, 수의사, 형사, 마술사, 화백, 가수, 연기자, 축구선수, 신부님으로 정해졌다. 별칭을 정한 이유와 간단한 자기 소개 후 별칭 외우기 게임을 통하여 서로를 익히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후 요즘 내 모습 그리기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사후 그림 비교 분석에서 제시하였다.

■ 2회기 : 데칼코마니

이번 회기에는 물감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데칼코마니 작업을 하였다. 각자가 만든 작품을 보며 연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후 4인 1조로 구성하여 조의 작품을 모아 이야기 만들기를 하였다.

(그림 1)은 「만능 조」의 작품으로 각자의 작품을 보고 행복한 숲(왼쪽 위), 무지개 연못에 슬픈 사람이 울고 있다(오른쪽 위), 악마(왼쪽 아래), 색깔 요정(오른쪽 아래)이 연상된다고 하였다. 이 작품들을 합하여 아이들이 만든 이야기는 '옛날 행복한 숲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숲에 악마가 들어와서 여자를 무지개 연못에 가두었어요. 색깔요정이 나타나서 여자를 구해주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숲에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였다.

조별 이야기 꾸미기를 통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았다. 그래서 발표 후 자신이나 타인이 간혀있거나 빠져있을 경우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짜 보기로 하였다.

'하느님께 기도한다', '친구나, 물고기에게 도움을 청한다', '자신이 수영을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나온다', '변신을 하거나 순간 이동을 한다', '착한 일을 하거나 웃음으로 악마를 설득하여 나



<그림 2> 데칼코마니

온다', '죽은 척 한다', '힘을 길러 악마를 무찌르게 한다'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보고 안되면 빨리 주위에 도움을 구하도록 하자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며 끝냈다.

■ 3회기 : 손도장 찍기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 및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 조별로 나누어 손도장 찍기를 하였다.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을 손에 발라 자리를 이동하며 즐겁게 손도장 찍기를 하고 그 후 개인별로 오른손, 왼손을 tracing하여 손이 하는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손이 하는 좋은 기능으로는 '짐 들어드리기, 장애인 돕기, 부모 심부름,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반찬 해드리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안마하기, 약속, 악수, 기도, 글 쓰기 등, 나쁜 기능으로는 '때리기, 꼬집기, 도둑질, 꿀밤, 살인, 싸움, 낙서, 위험한 것 가지고 놀기, 욕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다양하게 지적하였다.

이 중에서 나쁜 기능으로 때리기, 싸움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아이들은 서로 아버지로부터 맞은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헬멧으로 때렸다, 담뱃불로 지저 훑터가 남았다, 빵을 때렸다, 머리를 벽에 박았다, 물고문을 당했다, 술을 먹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는 등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 보라"고 하자 "술 처먹지마, 때리지 마"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한다. 모든 아이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큰소리로 외쳤다. 작업을 하고 난 뒤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아버지를 때려리니 우울하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보고싶지도 생각하기도 싫다, 악마 그 자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4, 5회기 : 상징적 가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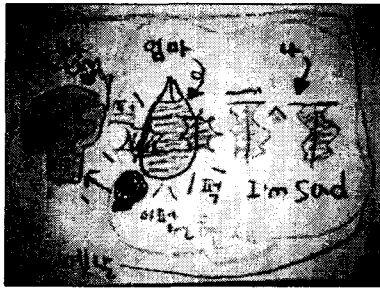
2, 3회기를 통하여 큰 방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해 나갔으므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가족을 생각해 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림 2>에서 아빠는 주먹으로, 엄마는 샌드백, 자신은 I am sad로 표현했다.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 대항하지 못하고 맞고 있는 어머니가 연상된다며 그때 자신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어 너무 슬펐지만 아빠와 떨어져 사는 지금은 행복하다고 한다.

그 외 아버지는 칼, 술, 담배, 검은 음영으로 묘사하였으며, 반면 어머니는 날개 잃은 천사, 꽃, 꿀벌, 해 등으로 묘사하여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과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가족화를 통하여 가족에 대해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많이 노출되었다. 두 팀으로 나누어 「행복한 가정에서 없

어저야 할 것」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술, 칼, 가위, 거짓말, 의심, 욕, 술 공장, 담배, 사람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적었다. 그 후 이것을 없애는 작업으로 소리를 지르며 크레파스로 지우기를 했다(그림 3). 이야기를 할 때 쪽스러워하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전지에 없 어저야 할 것을 적고 지우기 작업을 할 때는 더욱 활동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표출하였다.



<그림 2> 상징적 가족화



<그림 3> 가정에서 없어져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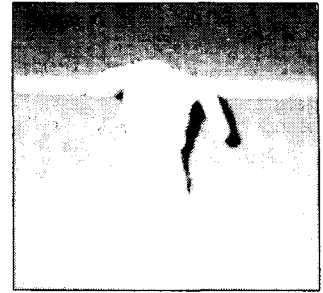
▣ 6회기 : 점토작업

먼저 저번 회기에 했던 가정에서 없어지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씩 소리지르기를 한 다음 작업했던 종이에 점토로 치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것, 만들고 싶은 것을 점토로 만들기로 하였다.

[수의사]는 별을 3개 만들었다. 첫 회기에 밤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3개의 별로 숫자가 늘어났다. 별 하나가 3개로 증가되고 표정도 편안해져 불안심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는 '아빠의 동굴'이라는 제목으로 동굴 안에 갇혀있는 엄마와 자신을 만들고 아빠가 밖으로 나가자 못하게 막고 있고 엄마와 자신은 발버둥치며 나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아버지 에 대한 원망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몇 회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빠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했다. '잠든 사이에 칼로 찌른다',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빠가 우리를 놓친 걸 후회하게 만든다', '유명인사가 되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 여성의 당당함을 알린다', '아빠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할 것이다', '커서 경찰이 되어 가정폭력범(아빠)을 체포할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 중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까?"를 물어보자 아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아빠를 때리고 죽이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되며 우리도 살인자가 될 것이다, 때리고 죽이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아빠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 것 같다. 좋아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는 의견 등을 나누었다. 결론적으로 모두 앞으로 우리 자신이 성공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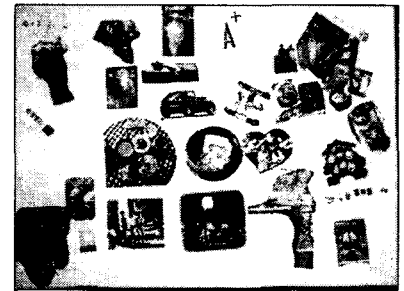


<그림 4> 점토 - 아빠의 동굴

▣ 7회기 : 내가 바라는 아버지상(꼴라쥬)

이번 회기는 촉진게임을 통하여 3조로 나누어 '바라는 아버지상'을 주제로 집단 꼴라쥬를 실시하였다(그림 5).

바람직한 아버지상으로 인내심이 있는 사람, 소처럼 순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최고의 아빠(A*),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아낄 줄 아는 사람, 깨끗하고 바른 사람(正),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면(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온순하고 친구와 같은 사람, 용감하고 멋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차, 해),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였다. 그 외 아이들이 바라는 아빠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엄마를 믿고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아빠, 술을 마시지 않는 아빠를 꼽았다.



<그림 5> 바라는 아버지상

▣ 8회기 : 내가 버리고 싶은 것

이번 회기에는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을 꼴라쥬로 표현해 보기로 하였다. 눈을 감고 자신이 내·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의 생각, 기억, 사물, 외적인 면 중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것, 고치고 싶은 것 등을 생각해 보고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대체로 아프고 슬픈 마음, 나쁜 생각, 편식하는 습관, 욕심, 거짓말, 욕설, 질투, 나쁜 버릇, 외모(주근깨, 살, 넓은 이마)등을 지적하였다. 그 중 욕설, 거짓말,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이 가장 많았다.

<그림 6>은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을 지우고 싶다는 표현한 작품이다. 아빠가 엄마 목에 칼을 갖다 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그렸다. 그 외 다른 아이들도 아빠가 엄마와 자신을 산에 묻으려 간 것, 엄마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고 같이 죽자며 장롱에 칼을 찌른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아빠가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헛것이 보이고, 쿵쿵거리는 계단 오르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떨린다

고 하였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부터 일주일간 실천해 보기로 결의하고 회기를 마쳤다.



<그림 6> 버리고 싶은 것

■ 9회기 : 계란화

이번 회기에는 지난 일을 잊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면 좋을까?' 에 대해 계란화로 작업하기로 했다.

<그림 7>은 쉽터에 오기 전에 같은 동네의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던 친구가 부럽다며 친구모습의 예쁜 소녀를 그렸다.



<그림 7> 계란화

그 외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재능이 많은 아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유명한 사람으로, 그리고 좋은 아빠가 있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10, 11회기 : 신체본뜨기(자신의 장점과 집단원 장점 찾아주기)

이번 회기는 신체 본뜨기를 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진지를 사람의 키만큼 붙이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누워서 신체 본뜨기를 하여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외형적인 부분 뿐 아니라 내면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찾아 적어 나가도록 하였다(그림 8). 그림 용지가 커 자신의 모습을 꾸며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아이들은 아주 흥미롭게 자신을 꾸미고 진지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을 적어나갔다.



<그림 8> 신체본뜨기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주고 싶은 선물을 돌아가면서 써 주거나 붙여주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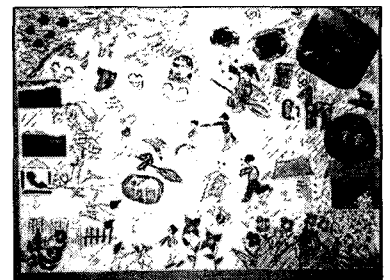
작업을 마친 후 한 사람씩 자신의 신체상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표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점이 보완된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기로 하였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편식을 안 했으면', '심한 장난을 치지 말았으면', '고민 있거나 속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친구와 나누었으면', '빼지지 말았으면',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이들은 신체 본뜨기 작업이 처음 해보는 작업으로 재미있었고 색다른 느낌이었으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장점이 있는 줄 몰랐다면 아주 만족해 하였다.

■ 12회기 :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

이번 회기에는 내가 앞으로 만들어서 살고 싶은 세상을 꾸며보기로 하였다. 3조로 구성하여 조별로 크레파스, 색종이, 잡지책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협동화를 하였다.

1조는 <그림 9>에 나타나 있는 '서로 어우러져 함께 하는 세상'으로 주제를 정하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집, 담과 벽을 허물고 동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세상, 장애자와 노약자를 도와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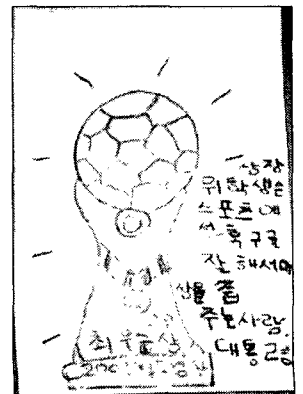


<그림 9> 살고 싶은 세상

이런 세상을 꾸미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13 회기 : 상장만들기

이번 회기는 마지막 시간으로 서로 부족한 곳을 채워주며 화합된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목적으로 '빈곳 채워주기'로 촉진게임을 끝내고 자신이 가장 받고 싶은 상장을 만들기로 하였다(그림 10).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상장을 만들고 그 외 장학증서까지 만들었다. 학업우수상, 효행상, 월드컵 최우수 축구선수상. 그림 그리기 대상, 당당명랑상, 교사 모범상, 의사모범상, 미술상 등을 만들었다.



<그림 10> 상장만들기

받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 시장, 학교장 등 다양했으며, 집단에 있는 언니가 좋다고 언니에게 받고 싶어하거나 자신에게 주는 상도 있었다.

상장을 다 만든 후 다른 학생들의 축하 속에서 부상과 함께 상장수여식을 하였다.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 앞에 나가서 상장을 받는 것을 쑥스러워 하면서도 아주 기뻐하였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상을 받기 위해 서로 같이 노력하자며 다짐을 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 버리고 싶은 것, 태워버리고 싶은 것 등을 태워 날려보내고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씩 채워나가기로 했다.

IV. 연구결과

1. 양적 분석

집단미술치료가 특성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질문지 조사를 사전·사후에 실시하여 그 차이를 t-test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특성불안은 사전 사후검사 결과 $p < .05$ 수준($t=2.4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불안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수준은 사전·사후 검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불안,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비교 검증

	사전검사		사후검사		t 값
	M(4점 만점)	SD	M(4점 만점)	SD	
상태불안	41.22(2.57)	9.13	32.44(2.08)	6.02	2.41*
자아존중감	29.55(2.59)	4.87	33.33(3.03)	4.15	-1.97*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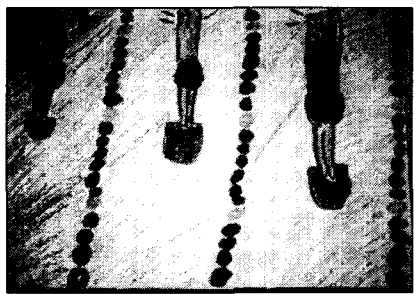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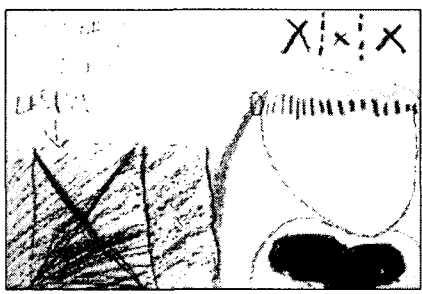
2. 질적 분석('요즘 나의 모습' 그림 사전·사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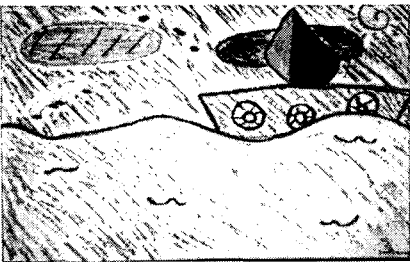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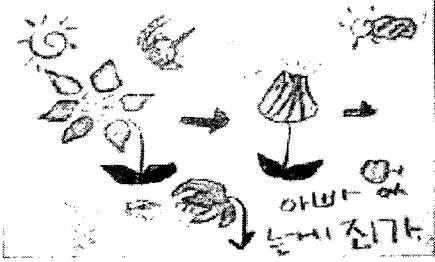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자신의 모습이나 자기개념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요즘 나의 모습' 그림을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그려 질적 변화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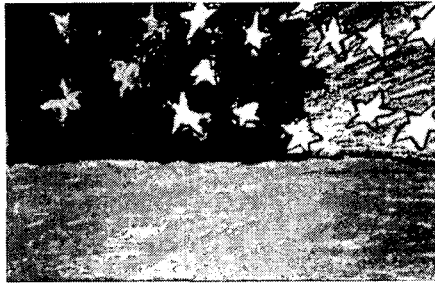
그 결과 아이들은 초기의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모습이 긍정적이며 밝은 모습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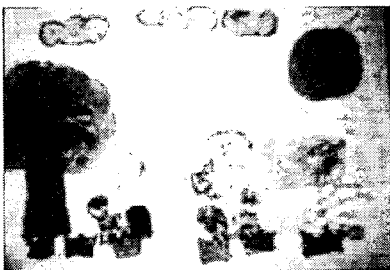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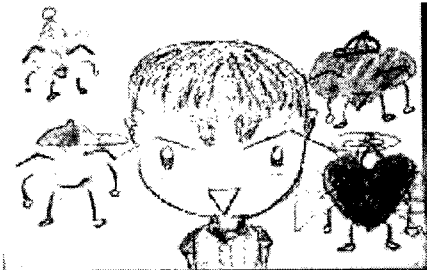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참가자의 응답은 그 동안의 미술활동을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안이 줄어들어 든 것이 좋고, 아직 같이 살 수 있는 용기는 없지만 아빠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점이 기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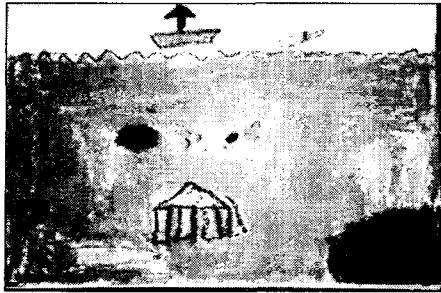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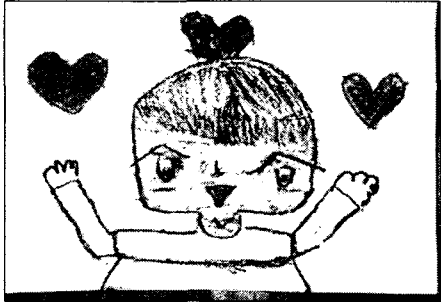
집단원 개인별 변화상은 사전·사후 그림과 함께 아래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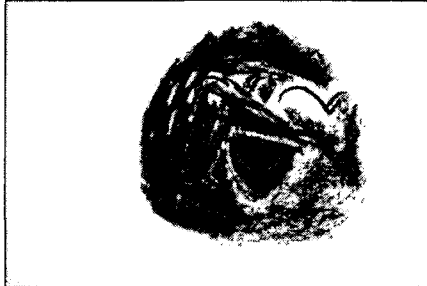
 <p><그림 11> 수영선생님 사전그림</p>	 <p><그림 12> 수영선생님의 사후그림</p>
<p>자신은 수영하는 걸 좋아하며 또한 하고 싶다고 수영하는 모습을 그림</p>	<p>평소 불안수준이 아주 높고 환청증세를 호소하였는데 최근 귀신걱정을 안하게 되었다고 함. 붉은 색 부분이 적고 검은색의 면적이 많았으나 검은색 부분을 x표로 지워 현재는 어두웠던 나쁜 마음이 줄어들고 행복한 마음이 늘어난 모습을 나타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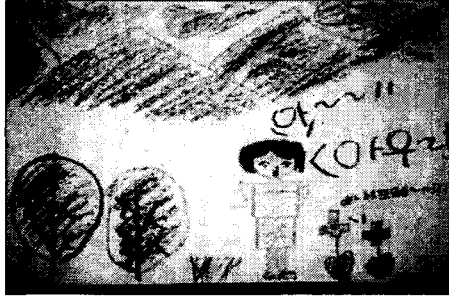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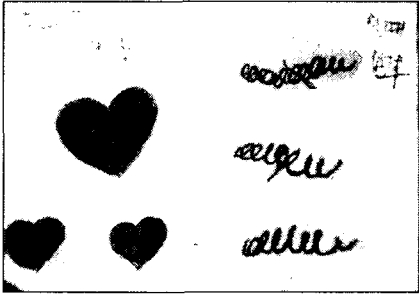
 <p><그림 13> 톱가수의 사전그림</p>	 <p><그림 14> 톱가수의 사후그림</p>
<p>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쓸쓸해 보이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우울 감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갈매기 등의 표현으로 보아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보인다. 그러나 배의 크기가 크고 튼튼하게 보여 파도를 잘 헤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p>	<p>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냄. 집단의 언니 오빠들과 있을 때는 화창한 해와 활짝 핀 꽃으로, 엄마로부터 꾸중을 듣고 친구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구름에 가린 해와 오무린 꽃으로, 아빠와 관련하여 말로 상처 받았을 때는 먹구름과 시든 꽃으로 표현하였다. 최근 학교에서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 친구가 아빠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 이야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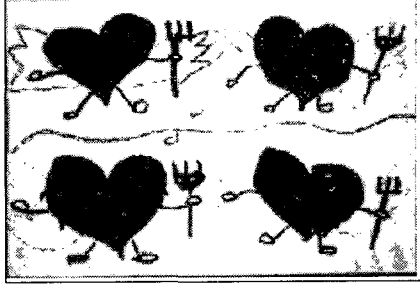
 <p><그림 15> 수의사의 사전그림</p>	 <p><그림 16> 수의사의 사후그림</p>
<p>감잡한 밤하늘에 별 하나를 그림. 외부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친구별이 오기를 희망함.</p>	<p>하늘에 많은 별을 그림, 현재는 친구와 집단의 언니 오빠들이 많이 생기고 잘 해준다고 기뻐함. 초기에는 불안하여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불안수준이 많이 감소하였음.</p>

 <p><그림 17> 축구선수의 사전그림</p>	 <p><그림 18> 축구선수의 사후그림</p>
<p>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여 자신의 축구에 대한 열망과 함께 공격적인 성향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은 나무, 누나는 꽃, 엄마는 태양, 아빠는 구름으로 표현하여 아빠에 대한 원망과 아빠로 인한 우울감을 나타내었다. 사과나무의 4개의 열매는 가족이 같이 살았으면 하는 욕구의 반영으로 보인다.</p>	<p>현재의 행복하고(빨강) 기쁘고(노랑 별) 밝고 시원한 모습(하늘색)을 나타냄</p>

 <p data-bbox="347 584 671 613"><그림 19> 마술사의 사전그림</p>	 <p data-bbox="927 591 1251 620"><그림 20> 마술사의 사후그림</p>
<p data-bbox="252 667 767 801">정착하지 못하고 어딘가를 향하여 헤엄치고 있는 바다 속의 물고기를 자신으로 표현함.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p>	<p data-bbox="818 719 1339 748">현재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냄</p>

 <p data-bbox="336 1205 683 1234"><그림 21> 신선생님의 사전그림</p>	 <p data-bbox="916 1205 1262 1234"><그림 22> 신선생님의 사후그림</p>
<p data-bbox="252 1285 767 1384">검은 구름과 비 사이에 해가 가려져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음. 초기에는 많이 위축되어 있고 다른 아이들과 접촉을 회피함.</p>	<p data-bbox="818 1285 1362 1384">비가 그치고 가려진 구름이 밀려나 방긋 웃고 있는 해를 두드러지게 표현함. 우울 감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향상되어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냄.</p>

 <p data-bbox="336 1805 660 1834"><그림 23> 연기자의 사전그림</p>	 <p data-bbox="927 1805 1251 1834"><그림 24> 연기자의 사후그림</p>
<p data-bbox="252 1890 767 2024">겹겹이 포개져 있는 산과 하늘 가득한 구름, 줄기가 약한 나무의 표현, 소리를 지르고 있는 소녀의 그림에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우울감, 분노를 엿볼 수 있음. "아빠 미워"라는 말을 외치고 싶다고 한다.</p>	<p data-bbox="818 1890 1362 2024">기쁠 때의 모습과 우울할 때의 모습을 구별하여 표현함. 선물을 받거나 컴퓨터를 잘해 기쁠 때의 모습은 하트모양으로,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을 때의 우울한 모습을 구름으로 표현함.</p>

 <p data-bbox="359 582 662 609"><그림 25> 의사의 사전그림</p>	 <p data-bbox="933 582 1236 609"><그림 26> 의사의 사후그림</p>
<p data-bbox="252 663 767 797">집은 용지의 가장자리에 그려져 있으며 집의 출입문이 없고 산에 에워싸여 있는 모습으로 가정에 대한 불안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이 싫어 구름을 타고 떠나고 싶다고 함</p>	<p data-bbox="818 663 1362 797">용지의 윗변은 과거로 나쁜 마음(청색)은 눈을 뜨고 있으나 착한 마음(붉은색)은 상처나 있고 눈을 감고 있는 반면 아랫부분(현재)은 착한 마음이 눈을 뜨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함. 나쁜 마음이 적어지고 착한 모습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p>

V. 결 론

본 연구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함께 쉼터기관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기존중감을 향상시켜 현실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녀 12명이었으며, 주 1회 100분씩 13회기 동안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의 불안수준은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불안수준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황유경(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집단구성원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었기 때문에 미술치료과정을 통해 자신의 불안, 두려움을 어려움없이 표출할 수 있었으며, 집단성원간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지받고 격려 받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동연 등, 1997; 전미향, 1997; 백양희, 1998; Castro, 1999).

또한 집단미술활동의 주제가 자신의 장점이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일 경우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됨으로서 자긍심 향상과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다시 태어나기, 신체 본뜨기를 하여

자신 및 타인의 장점 찾기, 상장 만들기 등이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셋째, '요즘 내 모습' 그림을 사전·사후에 그리게 하여 비교해 본 결과 초기 그림에서는 부정적이고 우울, 불안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나, 사후그림에서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묘사하여 아동들은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척도를 통한 양적 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폭력가정 피해 자녀들의 정서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활동과 상담시작시의 촉진게임은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상담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 유발이 되고 아이들의 무의식 표출과 자신의 상황 및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작용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집단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녀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동질집단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쉼터기관의 인원 구성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 통제집단을 둘 수 없었으며 실험집단 또한 초·중학생을 같은 집단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섞여 있어 중학생들이 동생들을 잘 이끌어 가는 점은 좋았으나 연령차로 인하여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다는 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이 아쉬웠으며, 연령에 비해 인원 수가 많아 때론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별하여 집단을 구성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또한 쉼터기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의 제한과 중간에 퇴소하는 가정으로 인하여 중간에 집단에서 이탈하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추후검사를 실시할 수 없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한편 아이들이 집단상담의 효과와 함께 갈등과 폭력 가정의 불

안한 생활에서 벗어나 컴퓨터에서 보호받고 지지받는 생활 속에서 평정을 찾아가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들을 위한 안전한 울타리로서의 컴퓨터가 마련되고, 수용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자신을 찾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컴퓨터가 더 설치되어야 하며, 컴퓨터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접수 일 : 2003년 07월 15일
 심사 일 : 2003년 07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3년 09월 29일

【참 고 문 헌】

- 고정자·김갑숙(1999).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6), 59-76.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갑숙·정미숙(1999). 학교 부적응 학생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6(2), 167-188.
- 김광일(1998). *가정폭력*. 서울:탐구당
- 김동연·공마리아(1998). 인물화 및 집·나무·사람그림(HTP)에 의한 심리진단법. *한국미술치료학회*.
- 김동연·이성희(1997). 결손가정 아동의 자긍심 강화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 4(1), 1-24.
- 김동연·이근매(1998). 미술치료가 아동의 우울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5(1), 43-58.
- 김동연·이재은·홍은주 공역(2001). *아동미술 심리 이해*. 서울 : 학지사.
- 김미애(2002). 가정폭력 피해자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구지부 부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사례집* 26-60.
- 김인숙(1998). 구타남편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호, 59-86.
-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우·이지현(1999).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증진. *미술치료연구*, 6(1), 57-72.
- 박주연·백은희(1999). 자기표현 미술활동이 정서장애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6(1), 175-188.
- 백양희(1998).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및 일탈행위 감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5(2), 145-162.
- 송인숙(1999).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아동의 위축행동과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1989). 아동의 성(性)과 불안정도에 따른 자기표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향(1997).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숙·최외선(2001). 소녀가장 청소년의 자아개념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8(1), 127-152.
- 전순영·김동연(2001). 저소득 및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미술치료를 통한 자기노출 사례. *미술치료연구* 8(2), 37-72.
- 전종국·최선남(1997). 집단미술치료의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4(2), 161-174.
- 정희원·김경연(2002). 아동용 자기성장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0(2), 15-27.
- 조선일보, 2001. 9. 23
- 이강아·이순형·성미영(2003). 시설보호 유아를 위한 사회적 유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1(5), 41-58.
- 육선화·이경희·이재림·성미애(2003).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모자관계증진 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03-116.
- 최외선·이영석·전미향(1996). 아동의 부적응행동 개선에 미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3(1), 83-100.
- 황유경(200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미술치료학회편(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동아문화사
- Riley, S. & Malchiodi, C.(1994). *Integrative Approaches to Family Art Therapy*. Magnolia Street Publishes.
- Castro, D. N.(1999). *Art Expression : An Innovative Program to Increase-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sis. Ursuline College Graduate School
- Gil, E.(1994). *Play in Family Therapy*. New York : Guilford Press.
- Malchiodi, C.(1990). *Breaking the Silence : Art Therapy with Children from Violent Homes*.
- Malchiodi, C.(1998). *Understanding Children's Drawing*. the Guilford Press.
- Winnicott, D. W.(1971). *Playing and Reality*. New York: Basic Books.